



절



대



벌



가



사상 최악의 부적격 사장후보 강동순-고대영 본선에

청와대 낙하산 사장, 온몸으로 거부한다!!!

KBS 사장선임 역사상 가장 최악의 부적격후보인 강동순, 고대영이 최종면접대상자에 올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당이사들의 반쪽자리 이사회를 통해 최종면접대상자에 선정된 강동순, 고대영, 조대현, 이몽룡, 홍성규중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부적격후보로 선정한 6명중 4명이나 포함된 가운데 막무가내 독재형 조폭스타일의 강동순, 고대영이 2파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면서 비상이 걸렸다.

교과서 국정화지지, 녹취록 파문의 영구 부적격자 강동순

강동순이 KBS사장이라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막장드라마에 소가 웃을 코메디다. 강동순이 KBS에 입성하는 순간 MBC에 버금가는 피바람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활한 탐욕과 뺏겨진 아집에 극우세력들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은 강동순의 미션은 녹취록에 쓰여 있는 것처럼 'KBS를 하얀 백지에다 새로 그리는 것'이다.

청와대의 오더를 충실히 수행할 청부사장으로 강동순은 자기쓰임새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에 적극 나서는 것도 맥을 같이 한다. 강동순은 지금의 KBS를 국영방송으로 만들어 1973년 이전의 KBS로 돌려 놓을 작자다. 강동순=사장, 곧 국영방송의 몰락이고 재앙이다.

고대영은 '도청'파문, 불신임 93.5%, 대기업 골프접대에 후배폭행까지

강동순과 청와대의 청부사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고대영은 많은 실화사건의 주인공이다. '선데이 서울'에나 나올법한 좌충우돌로 유명한 그가 청와대의 낙점을 받기 위해

바치는 조공은 보도본부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정권의 영구집권을 위해 KBS 뉴스를 청와대에 헌납할 사람은 고대영 뿐이라는 것이다.

고대영이 KBS사장이 된다면 KBS는 '청와대 방송'이 되어 반역사적인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에 크게 공헌(?)할 것이고 후세는 우리 KBS 구성원 모두를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할 것이다. 우린 맞설 것이다.

강동순 고대영, KBS에 발 들이는 순간 총파업이다

시대는 많이 흘렀지만 1990년 4월 선배들의 방송민주화투쟁은 후배들의 가슴을 타고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전경의 군화발에 끼이고 닭장차에 끌려가 감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았던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지금까지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KBS는 국영방송으로의 전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자랑스런 1천5백여 조합원들은 부적격 후보가 KBS에 발을 들이는 순간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다. 부적격 후보 중 그 누구도 순순히 본관 6층 사장실에 입성할 순 없다. 우리 1천5백여 조합원과 KBS의 국영화를 반대하는 KBS 노동조합, 각 협회와 어깨를 걸고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에게 총파업이란 강력한 무기가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들불처럼 일어나는 민심이 KBS 국영화 반대로 번져 여의도를 뒤덮을 것이다. 우리에게 2,500원의 수신료를 내어주시는 국민들이 든든한 후원군이다. 이제 싸움을 준비하자.

전국 조합원 총회 10월 26일(월) 낮 12시 본관 민주광장

정녕 파국을 원하는가!

강동순-고대영 2파전? ... 청와대는 KBS에서 손을 떼라!

혈~ 강동순



강동순 씨가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이번 KBS 차기 사장 공모의 가장 큰 이변이다. 강동순 씨는 지난 2009년과 2012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3차례의 사장 응모 때마다 모두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강동순 씨는 지난 2006년 11월, 방송위원 재직 시절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방송 장악을 모의한 녹취록이 공개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사실상 방송계에서 영구 퇴출된 인물이다. 당시 녹취록 내용

은 지금 봐도 충격적이다. 강동순 씨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에게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면 방송계를 하얀 백지에다 새로 그려야 한다”**며 한나라당에 방송 장악을 적극 주문한다. 또 **“우익 시민들을 동원해 모니터 그룹을 만들고 방송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벌여야 한다”**며 오랫동안 기획한 KBS 장악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펼쳐 놓는다.

‘극우 세력’을 딛고 일어난, 돌아온 ‘방송 부역자’

이처럼 도저히 공영방송사의 대표가 될 수 없는 자질의 소유자가 부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 인사들이 KBS 이사회를 장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강동순 씨는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선언’에 꼬박꼬박 이름을 올리는 등 뉴라이트와 뜻을 함께했다. 실제 이번 서류 심사 결과에서도 여당 추천 이사 7명 가운데,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표를 몰아줘, 상당히 높은 득표율로 면접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 한 학술포럼에 참가한 강동순 씨는 ‘박정희 시대와 한국 방송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저녁이면 모든 방송사가 정부 정책을 홍보했고, 전국 각지를 돌며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이 발전하는 사례를 취재 방송했다”며 박정희 시대의 방송을 ‘새마을 운동과 유신체계의 홍보도구’라고 회고했다. 또 “정치의 도구였던 방송계의 상황이 개선된 것은 군사 정권 이후부터였다”며 유신체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오락가락하는 신념, 과연 진심은 무엇일까?

과거 KBS 감사 시절 밝혀진 군 면제 사유까지 감안한다면, 아무리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청와대라도 강동순 씨를 KBS 사장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 그런데 유력 후보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또! 고대영



고대영 씨는 대표적인 부적격 KBS 간부로 정평이 나 있지만, 지난 2012년과 지난해 있었던 사장 공모 때도 유력 후보로 손꼽히며 결선까지 진출했다.

고대영 씨는 보도국장 재임 시절이던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특보 방송을 편파적으로 진행해 중계진이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건의 원인 제공자였고,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가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을 후배 기자들이 특종 했지만 이를 불방 시킨 전력이 있다.

여기에도 공정보도를 요구하는 후배기자 2명을 폭행한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2009년 기자협회 신임투표에서 93.5%의 불신임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 노동조합 신임투표에서 84%의 불신임을 기록해 보도본부장에서 해임되는 등 기자들의 거부감이 가장 높은 인사다.

“부사장이라도...” 하지만, 여당 추천 이사들 반대로 탈락

2011년 수신료 인상과정에서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의 배후로 지목된 것과 현대그룹으로부터 골프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점 등이 도덕적 흠결로 부각돼 매번 탈락했다. 심지어 고대영 씨는 2009년 12월 부사장직에 단수 후보로 제청됐지만 여당 추천 이사들에 의해 이마저도 탈락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장 공모 과정에서 2파전의 당사자가 된 비결은 바로 편파보도로 악명을 떨친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내년 총선과 2년 뒤 대선을 염두에 두고 KBS를 장악해 친정권적인 보도를 양산해내는 역할을 청와대가 맡기려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맡아, 기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친정권적 불공정 보도를 진두지휘한 능력을 높이 샀다는 해석이다. 정권 연장을 꿈꾸는 청와대와 총선 승리가 절박한 여당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고대영 씨 역시 여당 이사들로부터 두루두루 높은 득표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낙하산 사장 · KBS 장악 음모, 총파업으로 분쇄하자!!